

폐회사

제 7 회 한일 마음의교류심포지엄실행위원회
공동대표 윤 기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이사장)

먼저 제 7 회 한일 마음의교류 심포지엄이 한국 마산에서 열리게 되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해주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조성철회장님을 비롯한 현지의 마산시의 관계자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니벨재단의 이토이사오 이사장님께서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소셜워커의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의교류 심포지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계심에 대하여 사회복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 8 회가 되는 내년에는 도쿄에서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는 소셜워커의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셜워커의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관계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閉会の辞

第7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
共同代表 尹 基
(社会福祉法人こころの家族 理事長)



第7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の馬山市での開催について、温かく歓迎を準備していただき、惜しみない協力をしていただいたことに対し、韓国社会福祉士協会の趙聖鐵会長、はじめ、地元、馬山市の関係者の皆さまに心より感謝の気持ちを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

ユニバーサル財団の伊藤勲理事長が、高齢社会を迎える韓国と日本におけ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について関心を示し、このシンポジウムの開催継続にご尽力いただいていることに、社会福祉にかかわる者の一人として感謝いたします。

第8回となる来年は、東京での開催をめざしています。今の時代ほど、「地球村」において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が強く求められている時代はありません。私たちは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誇りを持って頑張っけてゆきたいと思います。

関係者の皆さまに改めて感謝を申し上げます。